

인터뷰 최진실 전남도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사

“두류 신제품 육성으로 식량작물 국산화 앞당기겠다”

콩과 녹두, 등부 등 두류는 우리 식탁과 식품산업에 빠질 수 없는 작물이지만 국내 자급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 곡물 가격과 공급망 변화에 영향을 받기 쉽고, 지역 식품산업 역시 안정적인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사 최진실 연구사(사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류 신제품 육성과 종자 생산, 재배기술 연구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연구 성과를 논문도 머무르게 하지 않고 농가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최 연구사는 “좋은 품종은 연구실이 아니라 농가에서 평가받는다”며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재배되고 농업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품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최근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등부

등부 ‘장알찬·홍원’ 보급, ‘미당’ 출원...기계수확형 품종 개발 전남 맞춤형 콩 품종 지역적응시험 단계...이모작 환경 반영 검증 원원종 생산부터 디지털 재배까지...현장 적용 중심 연구 강화

품종 육성이다. 등부는 떡고물과 양공 등 전통 식품 원료로 널리 사용되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약해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영광 모시외송편과 같은 지역 특산물에도 사용되는 만큼 안정적인 국내 원료 생산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 같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개발한 품종이 ‘장알찬’과 ‘홍원’이다. 두 품종은 최근 품종 등록을 마쳤고, 후속 품종인 ‘미당’은 출원 단계에 있다. 특히 미당은 흰색 종피를 가진 국내 최초 계통으로 주목받고 있다.

품종 개발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생산량만이 아니다.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기계수확이 가능한 초형과 재배 안정성이 점차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 연구사는 “등부는 수량뿐 아니라 수확 방식까지 고려해야 하는 작물”이라며 “기계화가 가능한 품종을 개발해야 노동력을 줄이고 농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콩 품종 개발도 전남 농업환경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전남은 마늘과 양파 수확



뒤 콩을 재배하는 이모작 형태가 많아 생육기간이 짧고 수량이 안정적인 품종이 필요하다.

현재 연구진은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유망 계통을 검증하고 있다. 실제 재배 환경에서 생육 특성과 수량성, 쓰러짐 저

항성 등을 평가해 전남 맞춤형 품종 선발에 집중하고 있다.

품종 개발과 함께 종자 생산도 중요한 역할이다. 최 연구사는 콩과 녹두 원원종 생산을 담당하며 안정적인 종자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원원종은 보급종 생산의 출발점으로 품종의 순도와 균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종자 생산은 단순히 종자를 늘리는 과정이 아니라 품종 특성을 유지하는 작업”이라며 “농가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종자를 공급하는 것이 연구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농업 연구도 확대하고 있다. 센서를 활용한 수분 관리와 자동 관개 시스템, 드론 기반 생육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배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아래에서 콩을 재배하며 차광에

따른 생육 변화와 품질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최 연구사는 “앞으로 품종 개발은 데이터 기반 재배기술과 함께 가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두류 자급을 향상하는 품종 개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품종 육성과 종자 생산, 재배기술 보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 환경에 맞는 우수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안정적인 종자 공급 체계를 구축해 농가 경쟁력을 높여겠다”며 “연구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려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목포과학대, ‘전남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개강

전남 역사·문화·생태계 등 전문 이론 강의 구성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6년 전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을 시작했다.

목포과학대학교는 최근 교내 통학강의동 하이플렉스강의실 404호에서 교육생들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전남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현재의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전문적으로 소개할 정에 문화관광해설사육성을 위한 교육의 경우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전남 전역을 직접 발로 뛰는 권역별 현장 실습도 강화했다.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으로 이어지는 현장실습을 통해 해

의 밀도 높은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 소양교육을 기초로, 전남의 역사·문화·생태계를 아우르는 전문 이론 강의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특히 ‘남도 정원문화’, ‘세계문화유산’, ‘섬·해양 문화’ 등 전남 특화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AI 관광해설 홍보기법’, 외국인 관광객 응대를 위한 ‘글로벌 해설 매너’, 응급처치 및 안전관리 등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 과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날 교육의 경우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전남 전역을 직접 발로 뛰는 권역별 현장 실습도 강화했다.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으로 이어지는 현장실습을 통해 해



목포과학대학교는 최근 ‘2026년 전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목포과학대학교

설 시나리오를 직접 적용해 보고 실전 감각을 익히게 된다.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은 오는 15일 최종 지필평가와 시연평가를 거쳐 치게 되며, 이를 통과한 수료생들은 전남 각 시군 관광 최일선에 배치돼 전남 관광 활성화의 주역으로 활약하게 된다.

임병호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업책임교수(관광문화융합과)는 “우리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전문 강사진을 총동원해 교육생들이 전남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최고의 문화관광해설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현규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배승관 광주 동부경찰서장 취임

“총출한 사회안전망 구축 매진”

배승관 전 광주지방법원법원지원부처장(사진)이 8일 제78대 광주 동부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배 서장은 “치안의 패러다임은 사후진압에서 사전예방으로 변하고 있다”며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총출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이 무엇인



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소통하며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남고등학교와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배 서장은 전남경찰청 정보2계장, 광주경찰청 홍보담당관, 장성경찰서장, 해남경찰서장, 전남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풍영정전 일원에서 진행된 물순환 워크숍과 환경정화 활동.

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 환경정화 실시

한국철도공사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은 광주 광산구 풍영정전 일원에서 물순환 워크숍과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철도공사가 지속 가능한 환경경영 실천을 위해 자체 운영 중인 ‘철도환경주간’의 하나로 마련됐다. 정비단은 물순환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영상 강 수계 하천 환경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풍영정전을 활동 장소로 선정했다.

이날 정비단 20여명을 비롯해 2020년 부터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함께해 온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물환경센터 직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깨끗한 수질관리의 필요성과 물순환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풍영정전 주변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과 폐기물 방치 구역을 중심으로 정화 활동을 펼쳤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귀뚜라미문화재단, 해남 지역인재 양성 지원

모범학생 등 73명에 5000만원 장학금 전달

귀뚜라미문화재단이 해남군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5000만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인연을 이어간다.

해남군교육재단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귀뚜라미문화재단의 ‘해남군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학생, 귀뚜라미 재단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수여식에도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이 직접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모범학생, 저소득 학생 등 중·고·대학생 73명에게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 수여식에는 최진민 회장이 평소 관심과 애정을 보여온 해남 K-타이거즈의 태권도 공연이 특별 무대로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으며, 장학생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직접 전달해 행사 의미를 더했다.

귀뚜라미그룹의 해남군 장학금 지원은 2023년 6000만원, 2025년 5000만원에 이어 올해도 5000만원을 후원하며 총 1억 6000만원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며 해남군 인재 육성에 꾸준한 힘을 보태고 있다.

최진민 회장은 귀뚜라미문화재단을 사제로 출연해 1985년부터 40여년간 사회



귀뚜라미그룹의 해남군 장학금 지원은 2023년 6000만원, 2025년 5000만원에 이어 올해도 5000만원을 후원하며 총 1억 6000만원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장학사업은 누적 장학생 7만여명에 달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을 통한 사회공헌 누적 금액도 6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민 회장(사진 왼쪽)은 “장학금을 통해 나라의 인재를 키우고, 희망을 더하고자 하는 뜻을 헤아려 아름다운 인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성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변함없이 해남군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귀뚜라미그룹과 최진민 회장에게 감사하다”며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서도 500억원 장학기금 조성하고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등 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진도군은 관광객과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솔비치 진도’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을 지정하고 지정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진도군청

“안심하고 드세요” 진도 식품안전구역 지정

위생 향상·친절 서비스 약속

진도군은 관광객과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솔비치 진도’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을 지정하고 지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식품안전구역 지정은 지역의 대표 명소인 솔비치 진도 내에 있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친절 서비스 실천’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품안전구역은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 관광시설 등 구역을 지정 후 위생 수준과 식품 안전 등 위생 평가를 진행해 적합한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업소를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군은 지정에 앞서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관리 상태, 식재료 보관 기준 준

수 여부, 조리장 청결 상태 등을 점검하며 자문(컨설팅)과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솔비치 진도 내에 있는 7개 업소 전체가 지정 요건을 충족해 ‘식품안전구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 지정은 진도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식에는 솔비치 진도 관계자와 안심구역 영업주 등이 참석해 식품안전 실천 결의와 함께 ‘스마일 진도 친절 운동(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식품안전구역 지정은 단순한 인증을 넘어 지역의 음식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관광객과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광주과학관·GIST 공동기획, 과학스쿨 개최

이창열 GIST 수석연구원 강연... 17일 상상홀

국립광주과학관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오는 17일 오후 7시 과학관 상상홀에서 ‘2026년도 제3회 과학스쿨’ 강연을 공동 선보인다.

이번 강연은 ‘SF영화가 현실로? 디스플레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광주과학기술원(GIST) 고등광기술연구원 이창열 수석연구원(사진)을 초청해 진행된다. 강연에서는 흑백 텔레비전(TV)부터 오늘날의 스마트폰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에 이르기까지 디스플레이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의 핵심 소재를 쉽고 흥미롭게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스스로 빛을 내는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인 양자점(퀀텀닷, Quantum Dot)의 원리와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색을 구현하는 과학적 원리를 소개한다. 또한 안정 형태의 기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래형 디스플레이 기술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본다. 강연자인 이창열 수석연구원은 유기반도체 소재 및 소자 분야 연구 전문가로, 경북대학교에서 고분자공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신소재공학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